

오네시모 소식지 NewsLetter

(오네시모 선교회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Onesimus Ministry spreads the gospel to prisoner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 5:1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Calatians 5:1



2025

3

월호

목차 Table of Contents

인사말 ~~~~~
2

Greetings ~~~~~
3

예수님의 초청장 (최준성 목사) ~~~~~
4

Invitation from Jesus (Pastor John Choi) ~~~~~ 8

감옥 방문을 마치고 (최준성 목사) ~~~~~
11

Prison visiting (Pastor John Choi) ~~~~~ 14

우리들의 얼굴 (연탄길 발취) ~~~~~
16

부활절에 (김현승 시인) ~~~~~
21

기도 제목 ~~~~~
22

~~ 인사 드립니다 ~~

지난 일년 가까이 이 곳 남 가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지금껏 미국 땅에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강한 바람이 며칠 췌 불어 오더니만, 아직 겨울인 지금 여기 저기서,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거대 산불로 평생 일귀 눈 삶의 터전을 뺏겨 버린 애타는 마음들이, 이미 타 버려 흩날리는 잿더미 속에서 이리 저리 아프게 뒹굴고 있다.

하늘을 한 번 쳐다 본다. 우리에게 일어 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하루는 이렇게 또 그렇게 보내어 지는가? 오늘과 같은 내일을 다시 살아 질 것이고, 그런 일 년이, 그러고 나서 그런 나의 인생이, 머지않아 한 개의 비데오 테잎처럼 나의 앞에 우두커니 놓여 있을 것이다. 오늘을 허비하지 말자. 그러면 내일도 의미 없지 않을 것이다.

눈 감고도 익숙하게 잘 하던 일도 실수할 때 있고, 잘 나가던 사업도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의지했던 친구에게도 보기 좋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애지중지 인생을 쏟아 부었던 자녀도 우리 가슴을 송곳처럼 아프게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지금 환경으로 우리는 그렇게 저절로 길들어 지는가?

우리 오네시모 교회는 지금 사무엘서를 강해하며 그 속에 숨쉬며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다윗과 사울을 매 주일 만나고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울과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차별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를 참 우리 되게 하는 것이라고-----

다윗과 사울은 동일한 세상, 상황에 살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 우리에게 일어 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고 반응을 하는 인생과, 또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인생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을 하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줄 믿는다.

그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오랜만에 인사를 나눕니다.

오네시모 선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식지를 주님 이름으로 만들어서 보내며, 글로나마 짧게 인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고, 따뜻하게,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성 목사

~~ Greetings ~~

For nearly a year, no rain has fallen here in Southern California. Strong winds, unlike anything I have experienced whil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blowing for days. And now, even though it is still winter, devastating wildfires have erupted here and there, consuming entire livelihoods before our very eyes. The anguish of those who have lost everything is now scattered like ashes, painfully drifting about.

I look up to the sky. How often do we live our lives unaware or unconscious of the fact that God knows everything that happens to us? How will we spend this day? Tomorrow will likely be lived just as today was, and before long, a year will pass in the same manner. Then, one day, our entire life will stand before us like a single videotape. Let us not waste today. If we do not waste today, tomorrow will not be meaningless.

Even tasks we can do effortlessly with our eyes closed can sometimes result in mistakes. A thriving business can suddenly collapse overnight. A trusted friend may betray us in a way we never expected. Even children, into whom we have poured our love and lives, may wound our hearts like a piercing thorn.

Are we simply conditioned to accept and adapt to our circumstances?

At Onesimus Church, we are currently studying the Book of Samuel, encountering David and Saul each Sunday as they live, breathe, and act within the Scriptures. The Saul and David we meet teach us that it is not our circumstances or environment that define who we are, but rather, how we choose to respond to those circumstances and challenges.

David and Saul lived in the same world and faced similar situations, but they interpreted them differently. At the core of their choices was their awareness—or lack thereof—of standing before God. One life responded with the consciousness that God knows everything happening to us, while the other did not.

If we choose to live today with a heart that responds to God as His people, I believe that He will lead us in His goodness.

It has been a while since I last greeted you, and I wonder how you have been.

I sincerely thank you for your constant prayers for Onesimus Ministry and its ministers.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s I send you this newsletter in the name of the Lord, I take this moment to greet you briefly through these written words.

May you stay warm and healthy in this cold weather, and above all, may your heart remain warm and strong through the grace of God.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nk you! Pastor John Choi

예수님의 초청장

최준성 목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고, 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어렵고, 또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은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있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고 위로의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쉽게 지나치지 말고,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잘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전지하신 분, 또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 지치고 힘든 우리를 다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초 청 장

초 청 인 : 예수 그리스도 님!

대 상 : 아무든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참가 비용 : 무료

신청 기간 : 빠르면 빠를수록

특 해 : 수고와 무거운 짐 완전 해결과 평안한 인생이 되게 하심

주 관 : 하나님!

협찬/ 후원 : 성령님!

우리가
초청장을

이런
받았다면?

이 초청장을 받고, 이에 응하는 자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일일이 당신에게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쉼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나는 지금 주는 밥 잘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고달프지 않아, 나는 아직 나 혼자 견딜만하니 그래서 난 예수님께 나아 갈 필요 없다면, 이 가치 있는 초청장의 의미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초청받은 자의 혜택도 없을 것이니, 그럼

그렇게 평생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인생의 세세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나 없는 인생은 너희가 힘들 수밖에 없음을 이미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쉬어가는 곳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초청한자들은 수고한자와 또 무거운 짐 진자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매일의 일상 속에 동분서주하며, 나의 욕심과 경쟁, 관계 속에서, 또 끝이 없는 만족을 위해 달려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수고함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똑 같은 그런 일상 속에 남는 것이라고는 상처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 하십니다.

그런 수고를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

또 우리는 모두 이런 저런 모양의 무거운 짐 누구나 다 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영혼은 다 지쳐 있습니다. 질병으로 오는 아픔과, 가정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못된 길로 갈 때의 번뇌, 이웃과, 옆 사람과의 상처와 오해. 과거의 잘 못으로 인한 죄책감과 열등감 등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짐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그 어떤 무거운 것보다 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의 무게입니다. 그런 우리의 무거운 짐의 엄청난 무게는 미움, 걱정, 좌절, 근심, 아픔으로 늘 우리와 같이 매일 숨을 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무거운 짐도 나 스스로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똑 같은 일상 속에 남는 것이라고는 허무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 하십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모든 죄인을 초대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수고와, 어깨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에서도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고, 불안, 걱정,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과 위로와 평화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게런티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죄 해결 위해 오신 분이시고, 그런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 온유, 겸손을 배워 예수님처럼 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는 소나 말에 어깨에 씌워 그 뒤에 쟁기 달아 끌기 위해 나무로 만든 기구인데 대개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한 짝 되어 같이 끌어 갑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다 있을 것입니다

과거 군대에서 체력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기압 받을 때, 봉체조라는 것을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전봇대 같은 긴 통나무를 여럿이서 한 줄로 서서 어깨 위에서 두 팔로 올렸다 내렸다를 수 없이 반복하는 행위) 그 때에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같이 섞여서 봉체조를 하면 키 큰 사람에게 그 통 나무의 무게가 다 쏠리게 되어 힘이 더 들게 되고, 키 작은 사람은 건성으로 그냥 손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멍에 한 쪽은 어미소가 매고, 다른 한쪽은 새끼 소가 메면 두 마리의 소, 어미 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 메고 가지만, 그 무게와 고통과 수고의 부담은 고스란히 어미소가 다 지고 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새끼 소는 모양만 멍에 매고 있지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새끼소는 이렇게 어미소와 한 멍에를 메고 따라다니며 밭을 가는 방법을 어미소에게 배우는데 어미소는 힘이 들어 땀을 뻘뻘 흘리지만 새끼 소는 시늉만 내고, 어미소는 새끼소가 힘 들까봐 자기가 모든 힘 다 쓰고, 새끼소에게는 그냥 따라 오게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며 또 초대하시고,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대신 그런 너는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는 그저 내게 와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내게 맡기고, 내가 진 멍에 속으로 와서, 너는 그저 나를 보고 배우고 내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오면 되는 것이다. 네가 나를 따라 오지 않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멍에가 너를 더 무겁게 짓 누를 것이지만, 내가 가는 방향으로 나를 따라오면, 너의 인생은 훨씬 쉽고 가벼울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임하는 것에는 티켓도 필요없이 공짜이고 기다리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 우리 심령에 노크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 들어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vitation from Jesus

Pastor John Choi

Sharing the Word of God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8-30*)

Is life feeling difficult for you? Do your plans and thoughts not always unfold as expected? Are your daily struggles weighing heavily on you, leaving your soul weary without you even realizing it?

Jesus not only grants us the great gift of salvation, but He also offers His

words of comfort, calling us to come to Him rather than struggle under the burdens of life alone. This verse is well-known, but let us take a moment today to reflect deeply on its meaning.

Who is Jesus?

Jesus is God Himself—the Almighty who hold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the all-knowing and all-powerful One. And yet, this same Jesus, full of love and compassion, invites us to come to Him in our weakness and weariness.

Invitation



Inviter: Jesus Christ



Who is invited: Anyone who is weary and burdened



Cost: Free



Deadline: The sooner, the better



Special Benefits: Freedom from burdens, true peace, and a renewed life



Organizer: God



Sponsored by: The Holy Spirit

What if we received such an invitation?

Those who accept this invitation are truly blessed, for Jesus has promised that He will surely give rest to those who come to Him.

But what if someone says, *"I'm fine. I eat well, sleep when I want, and live life as I please. I don't feel tired or burdened, so I don't see the need to come to Jesus."*

Then, for such a person, this invitation holds no meaning. And naturally, they will miss out on the blessings offered to those who accept it. They will continue to labor under the heavy burdens of life on their own.

However, Jesus is our Creator. He knows our lives better than we do. He already understands that without Him, life will inevitably become exhausting. Out of His great mercy, He invites us into His rest.

Jesus Invites the Weary and Burdened

To "labor" means to tirelessly strive for success, running the endless race of competition, ambition, and unmet desires. It is the daily toil that exhausts both body and spirit. But no matter how hard we labor, we cannot lighten our own burdens.

To be "burdened" means carrying the weight of life's many hardships—illness, marital conflicts, wayward children, broken relationships, guilt from

past mistakes, feelings of inadequacy, and countless worries. But above all, the heaviest burden we bear is that of sin. It manifests in the form of hatred, anxiety, despair, and sorrow, never leaving our side.

Yet, no matter how heavy our burdens, we cannot lighten them by ourselves. Today, Jesus says to us once again: "Bring all your burdens to me."

Jesus Calls Us to Acknowledge Our Need for Him

Jesus invites all sinners to come before the Creator and humbly confess their sins and burdens. He desires that we recognize how heavy our load truly is and acknowledge that we cannot carry it alone.

To those who come to Him, Jesus has given a promise:

Not only will He grant eternal rest in heaven after this life, but He also offers freedom, peace, and comfort here and now. "I will give you rest."

This is a guarantee from the Almighty God Himself.

Jesus, though fully God, took on human form to come to this world and take on the burden of our sins. He humbled Himself and gave His life for us. In response, He asks us to come to Him, learn from Him, and follow Him.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A yoke is a wooden harness placed on the shoulders of oxen, allowing them to pull a plow together. Typically, a strong, experienced ox is paired with a weaker, younger one. The stronger ox bears most of the weight, while the weaker one merely follows along.

For those who served in the military, this is similar to the log exercise during training, where soldiers lift and lower a heavy wooden log as a group. If a tall soldier is paired with a shorter one, the taller one ends up carrying most of the weight while the shorter one barely lifts his hands.

Likewise, when a mother ox is yoked with her young calf, she carries almost all the burden while the calf only follows, pretending to help. The calf learns by watching its mother, but the weight and struggle belong entirely to her.

Jesus tells us today:

"Are you weary and burdened? Come, take my yoke upon you. Walk with me, and I will carry the load for you. You won't have to bear the full weight anymore. Just stay by my side and follow my lead. If you resist and try to go your own way, the yoke will feel heavy. But if you trust me and follow where I lead, your life will be much lighter and easier."

This Invitation Requires No Ticket, No Waiting—Only a Willing Heart
You don't need a ticket to accept Jesus' invitation. There's no waiting list.
But it is not optional—it is essential.

Before today ends, take a moment to reflect on these words. Think deeply about them.

When we come to Jesus, our souls will find rest.

May each of us hear the gentle knocking of Jesus at the door of our hearts and respond to His invitation today.

I bless you all in the name of our Lord.

Simon D (가명) 방문을 마치고, 최준성 목사

오래 동안 찌푸렸던 날씨가 오늘따라 화사하고, 맑게 개여 뼈영 뚫린 푸른 하늘은 그 끝자락을 가늠하지 못하게 투명하고 생그럽다.

앞 뒤로 늘어 진 기다리는 긴 줄 가운데 서서, 언젠가 불러 줄 경찰의 반가운 목소리를 기대한다,

화창한 날씨에 호응이라도 하듯,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 저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정다히 나누는 모습이, 다소 지루한 표정인 나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의 순서가 다가오고 난 후, 철창 앞에 같은 라인에 서서, 둔탁한 게이트가 열리기를 함께 기다리던, 백인 할머니가, 머리 숙여 인사하듯 앞으로 굽어 버린 허리를 지탱하며 잡고 있던 지팡이를 힘껏 들어 올려 고개를 젓히며 내게 말한다,

“아주 좋은 날씨예요. 나는 오늘 남편을 만나러 왔어요,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러 와요, 당신도 좋은 시간 가지세요!!” 이렇게 화창한 날! 철창 안 칙칙함 속으로 매번 남편을 만나러 오는 날이 무척이나 좋으신가보다.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아이 모습처럼 순진해 무척 좋아 보인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기억에 남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사를 뒤로 한 채 할머니는 기우뚱 거리는 띄엄 띄엄 걸음을 재촉하며 방문실에 마련된 테이블로 향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디도서 3: 5)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할머니에게 함께 하시기를 속으로 기도한다.

옆 테이블의 할머니는 남편 할아버지와 만나 얼굴을 부비며, 우시는 듯, 웃는 듯 서로 중얼거리며 눈물인지 콧물인지 많은 방울을 시멘트 바닥위로 떨어구어 놓는다. 나도 몰래 맘이 찡해, 흘러 버릴 것 같은 눈물을 꼭 누른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거의 한 시간을 넘겨가며 형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 뒤 좌우 테이블에 둘러 앉아 못 다 나눈 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간혹 방문 때 만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무슨 슬픈 일을 상의라도 하듯 무거운 분위기로 방문을 하는 것이 주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들어올 때 만났던 꼬부랑 할머니의 모습은 남편 할아버지와 함께 아주 평화롭게 보였다.

매 주일 방문와서 만난다는데 무슨 나눌 이야기가 저리 많을까? 마치 두 사람의 어린이가 머리를 맞대고 무슨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두 사람의 어깨 너머로 비쳐오는 햇살이 함께 다정하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멀리 떨어져 보내고,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터득한 것일까?

오피서와 머쓱한 눈이 마주치기를 여러 번, 드디어 오피서가 뚜벅 뚜벅 나에게 걸어온다.

30 분 전에 연락을 했을 때 신발을 신고 있다고 알려 왔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 지금 다시 연락했으니 좀 더 기다리겠냐고 묻는 물음에 나는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오피서가 비슷한 물음으로 내게 와 묻기를 한 두번 더 했지만, 그러나 결국 형제는 나오지 않았다. 무심코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 차례 반복하며 “오 분만 더 있자”를 머리에 너 댓번 하고 났을 때는 나는 이미 접수대 앞으로 걸어 가고 있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아이디를 주십시오.

아쉬움은 창가에 걸터 앉은 서너 마리 참새처럼, 두 날개를 훨훨 저으며 파란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

입구로 터덜 터덜 걸어 나가는 나의 축 쳐진 어깨 너머로 좀 전에 익숙했던 지팡이 소리가 다정하게 들려온다. 딱! 딱!

할머니도 서둘러 면회를 마치고 나가시나 보다. 아주 오랜 이웃을 만난 것처럼 할머니는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 온다. “내일 교회에 가서 오늘 남편과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도 해야 해서 빨리 집에 가려 해요.” 그리고 가냘픈 한 손을 들고 넘어 질 듯 악수를 건네며 친근한 인사를 마무리 한다.

“God Bless You!!”

꼬부랑 할머니 앞에 놓인 녹록치 않은 환경과, 하루 일상에 상큼한 소망을 주시는 그 분을 그 때야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기억 속에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져 간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형제를 만나지 못해 무거운 발길을 돌리는 내게, 단번에 흐뭇한 마음을 회복 시키신 꼬부랑 할머니와 만나지 못한 우리 Simon 형제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해 본다.

After Visiting Simon D (Alias) Pastor John Choi

The gloomy weather that had lingered for so long suddenly cleared today, revealing a bright, open sky so blue and transparent that its end seemed unfathomable.

Standing in the middle of a long queue, waiting for my turn, I anticipated the welcome voice of a police officer calling my name. The people around me, perhaps responding to the sunny weather, were warmly sharing their stories with one another. Their lively exchanges contrasted with my somewhat weary expression.

As I waited, my turn finally came. Standing in line in front of the barred gate, I noticed an elderly white woman beside me. She had a hunched back, as if bowing, and was supporting herself with a cane. Suddenly, she lifted the cane high, tilted her head back, and said to me with a bright smile:

"It's such a beautiful day. I'm here to see my husband. I visit him once a week. I hope you have a wonderful time, too!"

Despite the somber reality of visiting her husband inside these cold, gray prison walls, she seemed genuinely happy on this sunny day. Her innocent smile, revealing white teeth, reminded me of a child.

I responded, "Thank you. I hope you have a precious and memorable time with your husband."

Without another word, she hurried off, wobbling slightly, heading toward a table in the visiting room.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Titus 3:5)

Silently, I prayed that the Lord's mercy would be upon this woman.

At a nearby table, I saw the elderly woman with her husband—an old man with a kind face. They pressed their faces together, whispering, their words

indistinguishable. Were they laughing or crying? Tears—or perhaps runny noses—fell in large drops onto the cement floor. My heart ached, and I fought back the tears threatening to escape my eyes.

I glanced at the clock on the wall. Over an hour had passed, yet Simon had not yet come out. I quietly observed the people around me, sharing their emotions with loved ones across the tables.

I couldn't help but compare the scene to the rare occasions when I saw fellow Koreans here. Our visits were often marked by heavy, solemn conversations, as if discussing something tragic. In contrast, the elderly woman I had met earlier seemed utterly at peace with her husband. They met every week, yet they still had endless things to share—like two children huddled together in deep conversation. The sunlight filtering over their shoulders made the moment even more tender.

I wondered—what was the secret to finding such peace despite being separated from a loved one?

Several times, my eyes met those of the officer in charge. Eventually, he walked over to me.

"We contacted Simon 30 minutes ago, and he said he was putting on his shoes. But he still hasn't come out. We just called again. Would you like to wait a little longer?"

I instinctively nodded.

The officer repeated the same question once or twice more, but in the end, Simon never came.

I stood up and sat back down several times, hesitating, telling myself, *"Just five more minutes."* But after repeating this thought four or five times, I finally found myself walking to the front desk.

"I'll be leaving now. Please return my ID."

The disappointment lingered like small sparrows perched on a windowsill, fluttering their wings before vanishing into the blue sky.

As I trudged toward the exit, my shoulders slumped, I suddenly heard a familiar sound behind me—the gentle tapping of a cane on the ground. Tap, tap.

The elderly woman from before was also leaving. She greeted me as if we were longtime neighbors. "I need to get home quickly. Tomorrow at church, I want to share about my visit with my husband today and prepare for that." Then, raising her frail hand, she offered me a handshake—light yet warm.

"God bless you!"

When I realized that the harsh circumstances facing this elderly woman and that the one who gave her refreshing hope in her daily life was none other than Jesus, my curiosity about her began to fit together like puzzle pieces in my thoughts.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John 14:27)

As I walked away, unable to meet Simon, I carried a heavy heart. But through my encounter with this elderly woman, my spirit was suddenly lifted.

I prayed that God's peace would be with both our dear Simon and this remarkable woman who had unknowingly comforted me.

우리들의 얼굴

연탄길 1 집 발취

석규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생일선물을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도중에 그는 길을 건너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육교로 올라갔다. 그 때 그의 앞에 술에 취한 어떤 노인이 곡예를 하듯 육교 계단을 올라 가고 있었다. 난간을 잡고 간신히 올라가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 불안 해 보였다. 만일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노인은 큰 변을 당할 게 틀림이 없었다. 석규씨는 얼른 노인에게 다가 갔다.

“할아버지! 조심하셔야 되요, 여기서 넘어 지시면 큰일 나요”
“.....” 고개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노인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석규씨는 노인을 부축했지만,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그의 한 손에는 아들에게 줄 선물까지 들려 있었다. 간신히 육교계단을 올라 갔지만 내려 가는 일이 더 난감했다. 노인은 이제 해면처럼 풀어진 몸을 석규씨에게 전부 의지하고 있었다. 그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목에 감고 한 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 왔다.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노인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이 계단으로 떨어졌다. 석규씨는 매우 난감했다. 허리를 숙여 지갑을 주워 보려고 했지만 노인을 부축한 채로는 불가능했다. 그는 앞서 걸어가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청했다.

“학생! 나 좀 도와 줘! 학생“

차림새가 불량해 보이는 그 학생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 갔다.

그는 더 큰 목소리로 학생을 불렀다.

“학생,----- 여기 지갑 좀 주워 줘, 내가 주울 수가 없어서 그래”

이번에는 잠깐 얼굴을 돌렸지만 학생은 이내 다시 앞을 보며 관심 없다는 듯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날카로운 눈매에 별로 좋지 않았던 인상이었던 학생에게 그는 욕이라도 해 주고 싶을 만큼 괴씸했다.

일요일 오후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아들의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왔다.

“안녕하세요?” “ 그래, 이렇게들 와 줘서 고맙구나”

석규씨와 그의 아내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런데 뜻 밖의 일이 일어났다. 아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지난 밤 집 앞 육교 앞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였던 것이다. 그 아이는 석규씨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석규씨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아이를 잠시 바라보고는 방으로 들어 가 버렸다.

그 날 밤 석규씨는 아들의 방으로 갔다

“영민아! 오늘 집에 온 친구들 다 같은 반이니?”

“같은 반 아이도 있고 학교가 다른 아이도 있어요. 왜요?”

“아니, 우리 영민이가 어떤 친구들 하고 지내나 궁금해서-----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거든. 친구

잘 못 사귀면 착한 사람도 결국은 잘 못 된 길로 빠지고 말아”

“아빠! 제 친구들 모두 착해요, 공부도 다 들 잘 하구요”

“그래?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친구는 언제?” 석규씨는 육교에서 아무 말없이 가 버렸던 아이에 대해서 넌지시 물었다.

“재석이요? 개가 공부 제일 잘해요.”

“세상을 살아 가는데 공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사람 됨됨이가 착해야지”

“아빠! 재석이 정말 착해요”

“영민아! 사람은 걸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석규씨는 당장이라도 지난밤의 일을 아들에게 알려 주어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 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친구 문제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차마 입이 떨어 지지 않았다.

“재석이라는 애, 지금 너하고 같은 반이니?”

“아니요, 지금 다른 학교에 다녀요. 그런데 아빠! 재석이 너무 불쌍해요. 요 아래 육교 건너편에 사는데 집 안 형편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거든요. 게다가 사고로 청각을 잃어서 들을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말하는 입 모양을 보고 겨우 알아 듣거든요”

“-----“

석규씨는 그제야 자신이 도움을 청했을 때 아이가 그냥 가 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날 낮,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 일이 부끄러워졌다.

진실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꺾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옳고 그름을 말해 왔다.

두 눈 부릅뜨고 세상을 살아 가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것인가!

Our Faces

Mr. Seok-kyu was on his way home, carrying a birthday present for his middle school-aged son. On his way, he climbed the pedestrian overpass near his house to cross the street. At that moment, he noticed an elderly man, heavily intoxicated, struggling to ascend the stairs as if he were performing an acrobatic act. The old man clung to the railing, barely making his way up, looking extremely unsteady. One misstep, and he would undoubtedly face a terrible accident. Seok-kyu quickly approached him.

"Excuse me! You need to be careful. If you fall here, it could be very

dangerous." The old man, too drunk to even hold his head up properly, gave no response.

Seok-kyu tried to support him, but helping a drunken person was no easy task. To make matters worse, he had a gift for his son in one hand. Though he managed to get the old man up the stairs, going down was even more difficult. The elderly man, now completely limp like a sponge, relied entirely on Seok-kyu for support. Wrapping the old man's arm around his neck, he carefully took one step at a time down the stairs.

Just as they were nearing the bottom, the old man's wallet slipped out of his pocket and fell onto the steps. Seok-kyu was in a difficult position—bending down to pick up the wallet while still supporting the man was impossible. He spotted a student walking ahead and called out for help.

"Hey, student! Can you help me out?"

The student, dressed in a way that made him seem a bit rough, pretended not to hear and continued walking down the stairs without even glancing back.

Seok-kyu called out again, this time louder.
"Student! Please, can you pick up this wallet? I can't bend down to get it myself."

This time, the student briefly turned his face toward him, but without a word, he looked away again and quickly disappeared as if he had no interest. His sharp eyes and unfriendly expression left Seok-kyu feeling frustrated, so much so that he wanted to curse at him.

On Sunday afternoon, some of his son's friends came over to celebrate his birthday.

"Hello!"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Seok-kyu and his wife warmly greeted the children. But then, an unexpected thing happened—one of his son's friends was the very student he had seen on the overpass the night before!

The boy's face stiffened as soon as he saw Seok-kyu. Likewise, Seok-kyu, not particularly pleased, stared at the boy for a moment before retreating into another room.

That night, Seok-kyu went to his son's room.

"Young-min, are all the friends who came over today from your class?"
"Some are in my class, but some go to different schools. Why do you ask?"
"Just curious about what kind of friends my son spends time with... You know, it's important to choose your friends wisely. If you befriend the wrong people, even good kids can end up going down the wrong path."
"Dad! My friends are all good kids. They all study hard, too."
"Really? What about the last boy who arrived? What's he like?" Seok-kyu subtly inquired about the boy from the overpass.
"Oh, Jae-seok? He's actually the best student among us."

"Studying well isn'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A person's character matters more." "Dad! Jae-seok is really kind."
"Young-min, you can't judge a person just by their appearance."

Seok-kyu wanted to tell his son about the incident from the night before—that Jae-seok had ignored someone in need and walked away. He wanted to warn his son not to befriend such a person. But he hesitated, worried that it might hurt Young-min.

"Does Jae-seok go to your school?" "No, he goes to a different school now. But Dad, Jae-seok has a really tough life. He lives just past that overpass. His family is struggling financially, so he delivers newspapers early every morning. And... he lost his hearing in an accident. He can't hear at all. He only understands people by reading their lips."

"..."

Only then did Seok-kyu understand why Jae-seok had walked away without responding when he called for help.

He felt ashamed that he had judged the boy so unfairly during the day.

The truth can only be seen with the heart. Yet, we have always judged right and wrong based only on what we see.

We walk through life with our eyes wide open, but how little we actually see!

부활절에

당신의 핏자욱에선
꽃이 피어 - 사랑 꽃이 피어,
땅 끝에서 땅 끝에서
당신의 못자욱은 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4 월의 관(棺)에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 납니다.

해마다 삼월과 사월 사이의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筭)으로....

(김현승·시인)

칼빈주의 5 대 교리

칼빈주의 5 대 교리 (T.U.L.I.P) : TULIP 이라는 머리글자 단어는 칼빈주의의 5 대 교리라고 불리는 것을 나타낸다. 17 세기 초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앙 5 개조를 거부하고 올바른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델란드의 돌트라는 도시에서 돌트총회 회의에서 채택된 교리를 칼빈 주의 5 대교리라고 합니다.

전적부패 - Total Depravity / 무조건적 선택 - Uncontional Election
제한된 속죄 - Limited Atonement / 불가항력적 은혜 -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 - Perseverence of Saints
위 칼빈의 5 대교리의 영어 첫자를 따서 'TULIP'이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

<기도로 동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 한마디는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 1.오네시모 선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교회가 되도록,
- 2.재소자 방문을 위한 교도소 방문의 먼길 운전이 항상 안전하도록,
- 3.간힌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만나고, 변화되어,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 4.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이 진정한 오네시모로 변화 되기를,
5.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 6.섬기는 몸된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 7.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 8.New Life Ministry (재소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역자로 변화되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사역) 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확장되기를,
- 9.한국의 추방자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 10.오네시모 선교회 새 비전 “예방 사역”을 위하여
- 11.선교회 사역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들을 위해,
- 12.오네시모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이사회와 후원회, 그리고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적 평강과 건강을 위해,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성경과 신앙 서적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Onesimus Ministry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0

Tel: 714-739-9100

Email: onesimusministry94@gmail.com

www.onesimusministry.org

[Est. 1994](#)

Onesimus New Life Ministry: Korea, Japan, Mexico, Colombia

International Humanitarian Exchange Council, CA USA.

Rev. Suk Ki Kim Founder

Rev. John S. Choi President